

동북아 모태문화, 유라시아 모태문화

3수 분화의 세계관(1-3-9-81)

The World View of Trichotomy

* 상세한 것은 아래의 책을 참조할 것.

우실하, 『3수 분화의 세계관』(서울: 소나무,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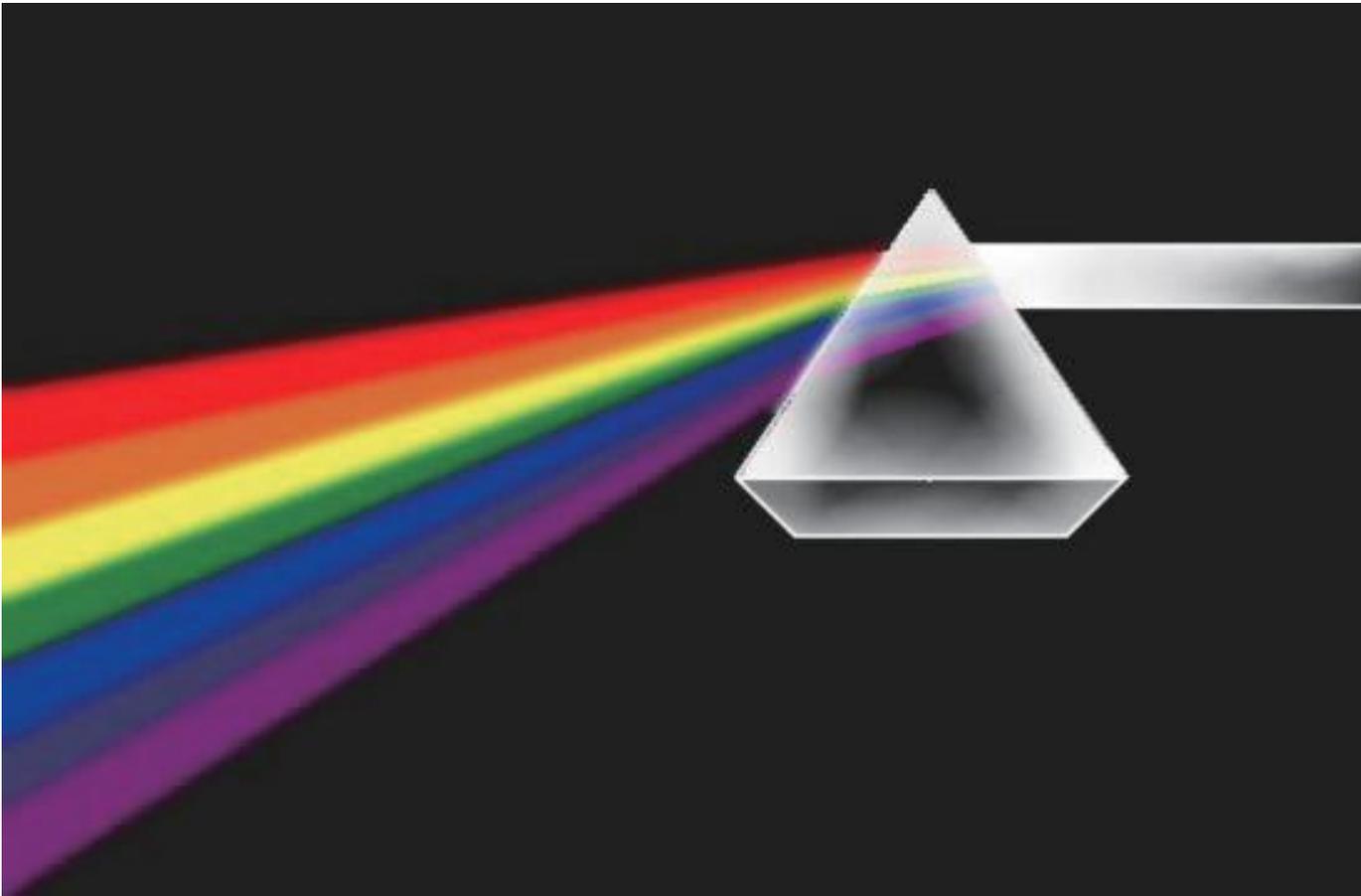
한국항공대학교

우실하

1. 무지개는 몇 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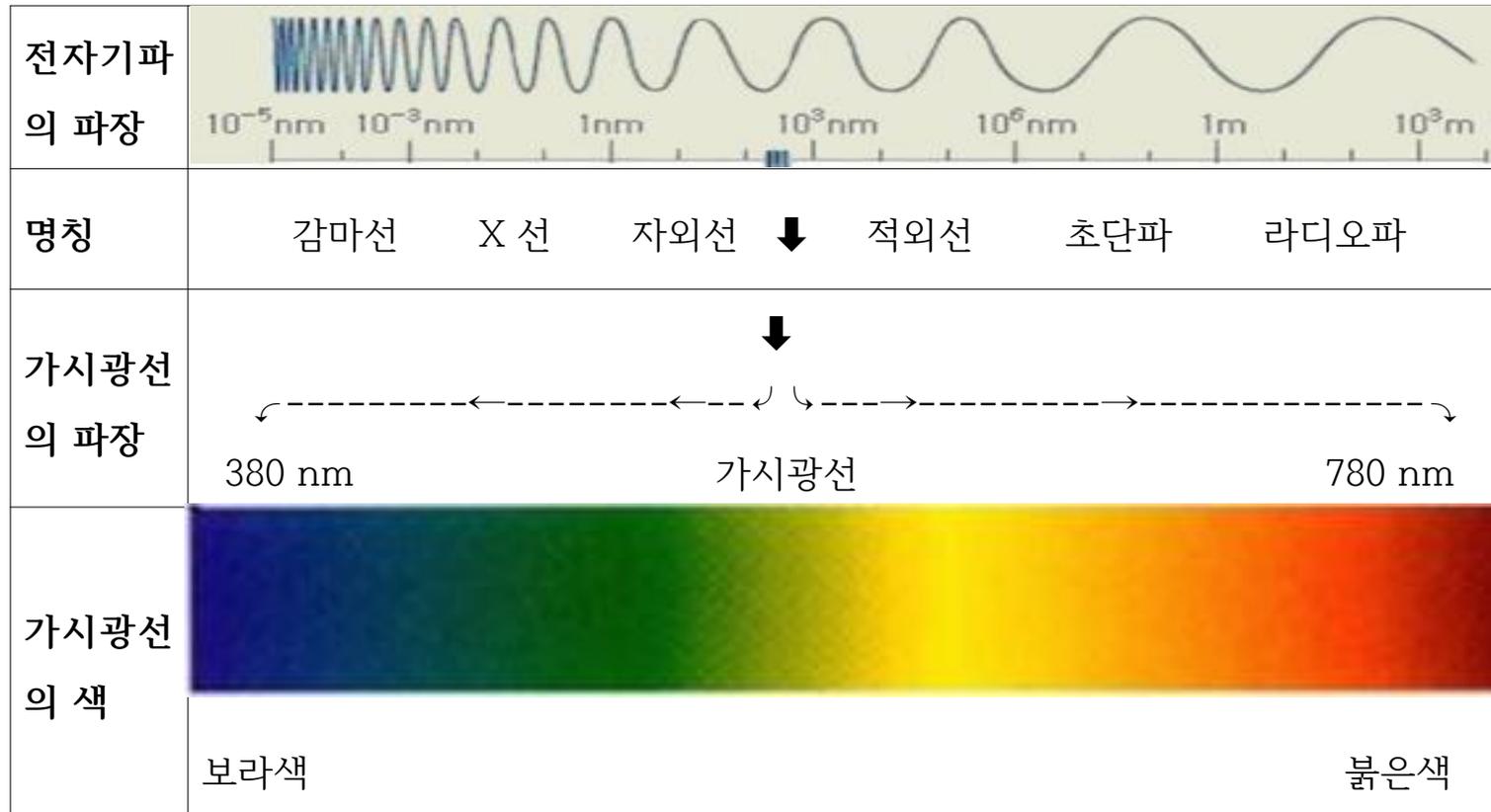
< 프리즘을 통과한 가시광선의 색을 일곱 색으로 구별한 것 >

* 실제로는 이렇게 일곱 색으로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 전자기파(電磁氣波)의 범위와 인간의 가시광선(可視光線) >

* 가시광선 안에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색이 포함되어 있다.



< 2008년 동몽골 답사 때 찍은 쌍무지개 >

* 육안으로 보는 무지개의 색을 7색으로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무지개의 색은 나라마다 시기마다 달랐다 >

(1)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폰**(Xenopōn: BC 430 ? ~ BC 355 ?) 은 3색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 322)는 4색

(3)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 4? ~ AD 65)는 5색

(4) **뉴턴**(Isaac Newton, 1642/1643 ~ 1727)은 7색

* 왜 뉴턴은 그 많은 색들을 굳이 7색으로 구분했을까?

* 이것은 수메르에서 시작된 성수 7의 문화가 뉴턴 당시에는 이미 북유럽의 샤머니즘적 사유체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고 7일을 일주일로 나누어있듯이 스펙트럼을 통과한 무수한 빛의 색도 일곱 색깔로 구분했던 것이다.

< 동북아시아에서 무지개 색의 변화 >

(1) 7색깔 무지개

서구에서 뉴턴으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7색깔 무지개라는 관념은 불과 100여 년 전 개항기에 서구와의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것.

(2) 5색 찬란한 무지개

음양론과 오행론이 결합되어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으로 정착되는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개항기 이전까지 약 250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유교문화권, 동북아시아에서는 음양오행론이라는 사유체계의 영향으로 무지개는 언제나 5색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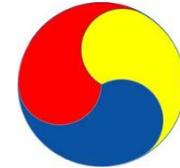
(3) 9색깔 무지개

음양오행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이전 동북아시아에서는 **북방샤머니즘의 고유한 사유체계인 '3수 분화의 세계관'(1-3-9-81)**에 입각하여 무지개를 9색이라고 여겼다.

2. '3수 분화의 세계관'의 논리체계

(1)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삼일신(3.1神),
삼일관념(3.1觀念)

* 최종적인 도상이 삼일태극(三一太極)



(2) 하나에서 지속적으로 셋으로 분화하는 '우주론적 자기
전개의 논리'(1-3-9-27-81.....)

* 3수 분화의 프랙탈(Fractal) 구조

(3) 3, 9(3×3), 81(9×9)이라는 독특한 성수(聖數)를 통한
세계이해

필자는, (1)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3.1(Three in One)관념을 바탕으로 한 3.1철학을 '본체론적인 논리'를 지니고, (2) 하나에서 둘을 거치지 않고 셋으로 지속적으로 분화되는 '3수 분화의 프랙탈(fractal) 구조'에 기초한 '우주론적 자기 전개의 논리'를 지니며, (3) 이 과정에서 탄생하는 3, 9(3×3), 81(9×9)이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 성수로 사용되는 북방 샤머니즘의 일련의 사유체계를 '3수 분화의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3. 『周易』과 '2수 분화의 세계관'

태극 (1)	 * 음양태극 (陰陽太極)							
음양 (2)	 (음)				 (양)			
사상 (4)	 (태음)		 (소양)		 (소음)		 (태양)	
팔괘 (8)	 (坤)	 (艮)	 (坎)	 (巽)	 (震)	 (離)	 (兌)	 (乾)
64괘	* 8괘가 아래위로 쌓이면서 64괘를 만든다.							

<『주역』의 '복희 64괘 차서지도(伏羲六十四卦次序之圖)'>

圖 之 序 次 卦 四 十 六 義 伏

坤 剝 比 觀 豫 晉 萃 否 謙 艮 蹇 漸 小 旅 咸 遯 師 蒙 坎 渙 解 未 困 訟 升 益 井 巽 恒 鼎 大 姤 復 頤 屯 益 震 巽 隨 无 明 賁 既 家 豐 離 革 同 臨 損 節 中 歸 睽 兌 履 泰 大 需 小 大 大 夬 乾

過

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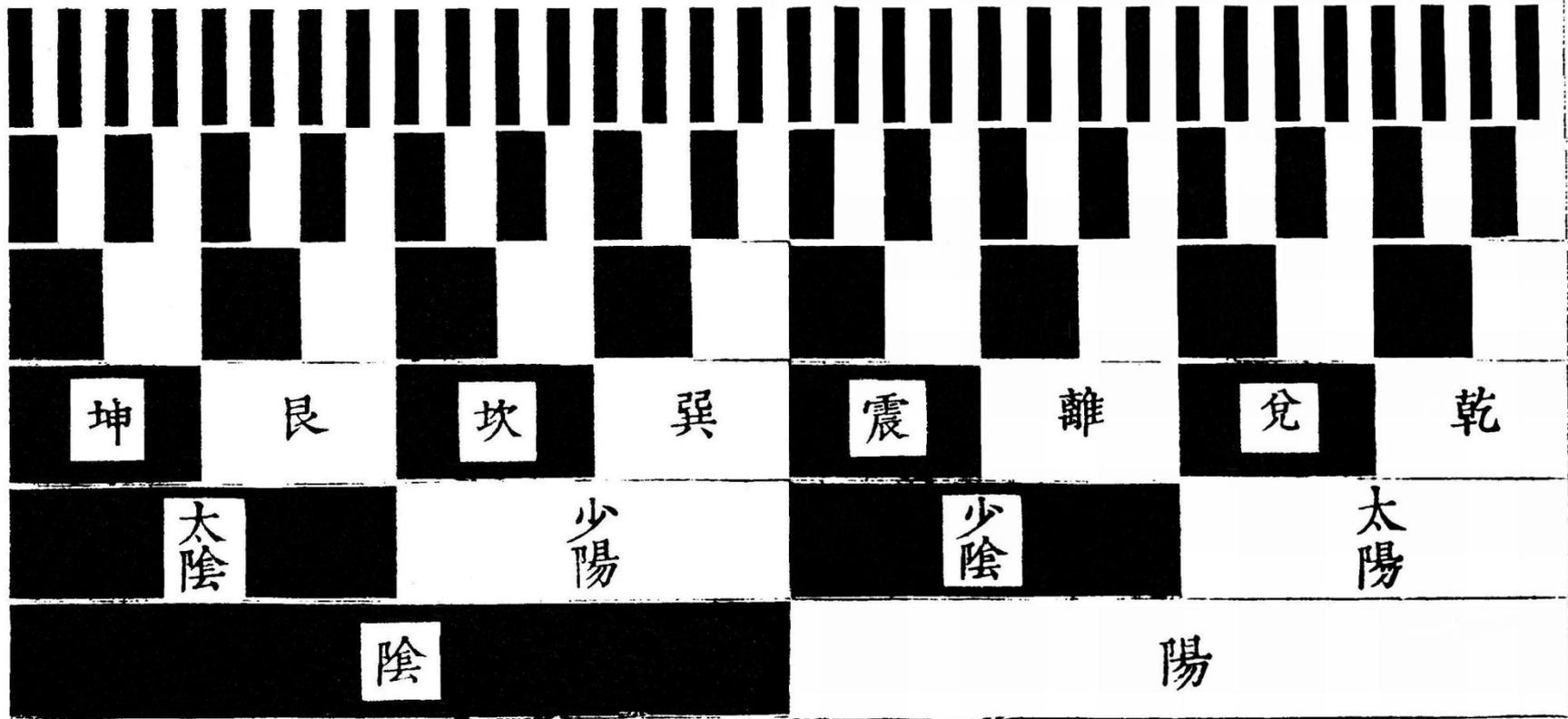
過

盍 矣 夷 濟 入

入

乎 妹

畜 畜 壯 有



六十四
三十二
十六
八卦
四象
兩儀

極太

주역(周易) 64괘(卦) 도표

內卦 / 外卦								
	一乾天	二兌澤	三離火	四震雷	五巽風	六坎水	七艮山	八坤地
								
一乾天	乾爲天	天澤履	天火同人	天雷无妄	天風姤	天水訟	天山遯	天地否
								
二兌澤	澤天夬	兌爲澤	澤火革	澤雷隨	澤風大過	澤水困	澤山咸	澤地萃
								
三離火	火天大有	火澤睽	離爲火	火雷噬嗑	火風鼎	火水未濟	火山旅	火地晉
								
四震雷	雷天大壯	雷澤歸妹	雷火豐	震爲雷	雷風恒	雷水解	雷山小過	雷地豫
								
五巽風	風天小畜	風澤中孚	風火家人	風雷益	巽爲風	風水渙	風山漸	風地觀
								
六坎水	水天需	水澤節	水火既濟	水雷屯	水風井	坎爲水	水山蹇	水地比
								
七艮山	山天大畜	山澤損	山火賁	山雷頤	山風蠱	山水蒙	艮爲山	山地剝
								
八坤地	地天泰	地澤臨	地火明夷	地雷復	地風升	地水師	地山謙	坤爲地

4. 『太玄經』과 3수 분화의 세계관

- 양웅(揚雄: B.C. 53- A.D 18)의 『태현경(太玄經)』은 유가의 『주역』과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도가의 역'이라고 불린다.
- 『태현경』에서는 『주역』의 음양론에 따른 '2수 분화'와는 전혀 다른 '3수 분화'의 논리를 보여준다.
- 양웅의 『태현경』 속에는 '3수 분화'의 특징인 '1-3-9-27-81'로 이어지는 정연한 수리체계가 잘 드러나 있다.

『태현경』은 1현(玄)-3방(方)-9주(州)-27부(部)-81가(家)로 분화되며, 81가를 81수로 그려 81수(首: 주역의 64괘에 해당)로 세상사를 설명하고 있다

* 양웅의 자는 자운(子雲)이고 촉군(蜀郡) 성도(成都) 사람으로 대부에 오르기도 했으며, 주로 저술과 학술활동에 전념하였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 『태현』과 『법언(法言)』이 있다. 『태현』을 높여서 보통 『태현경』이라고 한다.

* 서한 시대에 『도덕경지귀(道德經指歸)』를 지은 엄군평(嚴君平)의 제자이자 대표적인 도가 사상가였던 양웅(揚雄)은 모두 10권으로 된 『태현경(太玄經)』을 저술하였다.

태현경 81수

八一	七六	七一	六六	六一	五六	五一	四六	四一	三六	三一	二六	二一	一六	一一	六	一
䷛	䷛	䷛	䷛	䷛	䷛	䷛	䷛	䷛	䷛	䷛	䷛	䷛	䷛	䷛	䷛	䷛
養	劇	止	去	飾	唸	常	廓	應	疆	裝	務	釋	交	差	戾	中
七七	七二	六七	六二	五七	五二	四七	四二	三七	三二	二七	二二	一七	一二	七	二	
䷛	䷛	䷛	䷛	䷛	䷛	䷛	䷛	䷛	䷛	䷛	䷛	䷛	䷛	䷛	䷛	
馴	堅	晦	疑	守	度	文	迎	辟	衆	事	格	栗	童	上	周	
七八	七三	六八	六三	五八	五三	四八	四三	三八	三三	二八	二三	一八	一三	八	三	
䷛	䷛	䷛	䷛	䷛	䷛	䷛	䷛	䷛	䷛	䷛	䷛	䷛	䷛	䷛	䷛	
將	成	菅	視	翕	永	禮	過	盛	密	更	夷	僖	增	干	磧	
七九	七四	六九	六四	五九	五四	四九	四四	三九	三四	二九	二四	一九	一四	九	四	
䷛	䷛	䷛	䷛	䷛	䷛	䷛	䷛	䷛	䷛	䷛	䷛	䷛	䷛	䷛	䷛	
難	闕	窮	沈	聚	昆	逃	竈	居	親	斷	樂	從	銳	狩	閑	
八〇	七五	七〇	六五	六〇	五五	五〇	四五	四〇	三五	三〇	二五	二〇	一五	一〇	五	
䷛	䷛	䷛	䷛	䷛	䷛	䷛	䷛	䷛	䷛	䷛	䷛	䷛	䷛	䷛	䷛	
勤	失	割	內	積	減	唐	大	法	斂	毅	爭	進	達	羨	少	

5. 성세영의 『일청사고(一晴私稿)』. 『부인경(符印經)』과 '3수 분화의 세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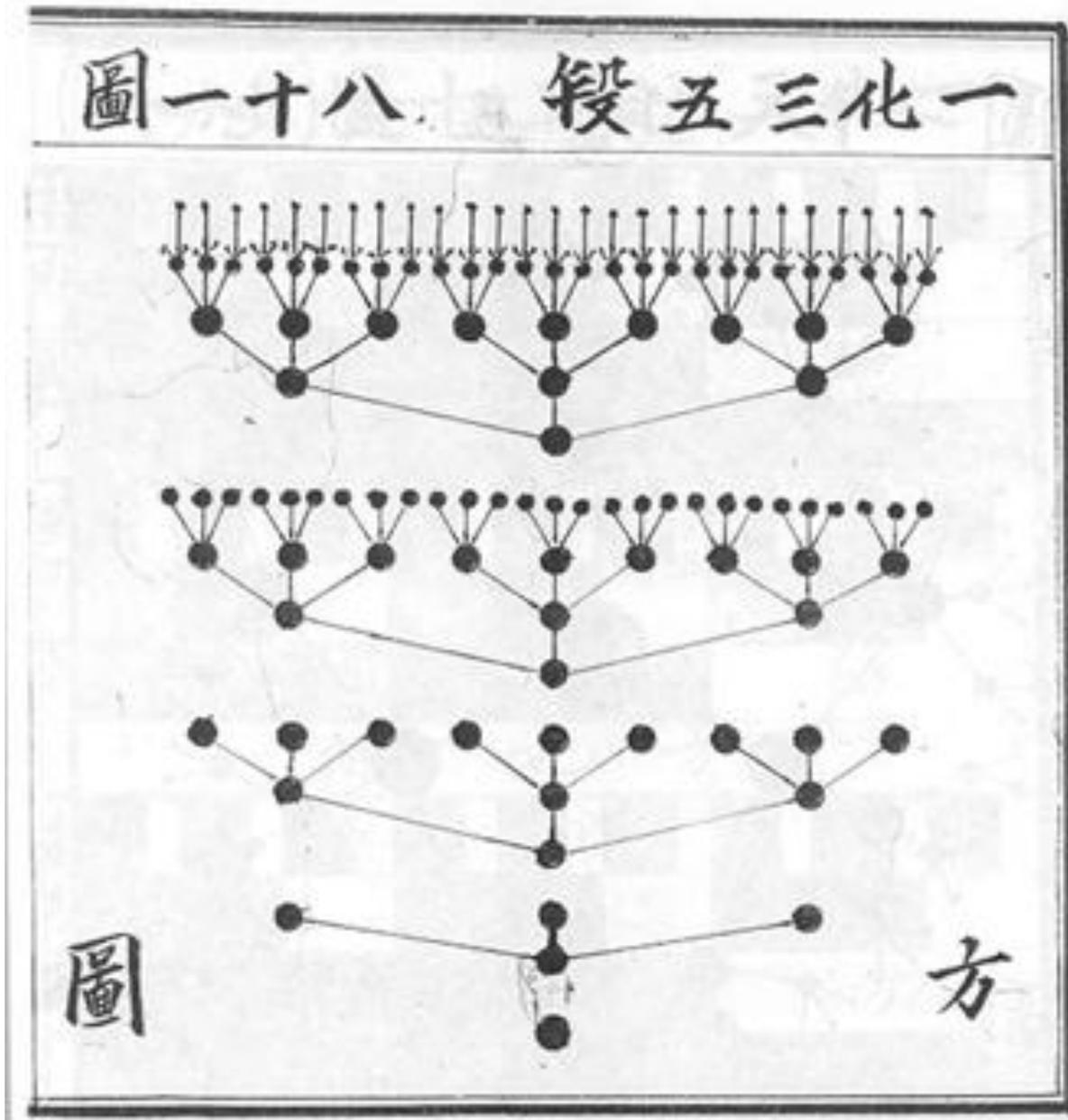
대종교 교인이었던 **성세영(成世永: 1885~1955)** 선생은 한문으로 한자 한자 직접 쓴 『일청사고(一晴私稿)』와 『부인경(符印經)』을 남겼다.

이 책들의 첫 부분에 공통으로 보이는 4가지 형태의 「**일화삼오단팔십일도(一化三五段八十一圖)**」와 「**구변삼화생성도(九變三化生成圖)**」 등은 철저히 '1-3-9-81'로 분화되는 '3수 분화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그림들은 대종교의 경전으로 인정되는 『**천부경(天符經)**』과 『**삼일신고(三一神誥)**』의 수리철학적 논리를 성세영이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1이 지속적으로 3분하여 81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일화삼오단팔십일도」는 **양웅의 『태현경』의 논리와 거의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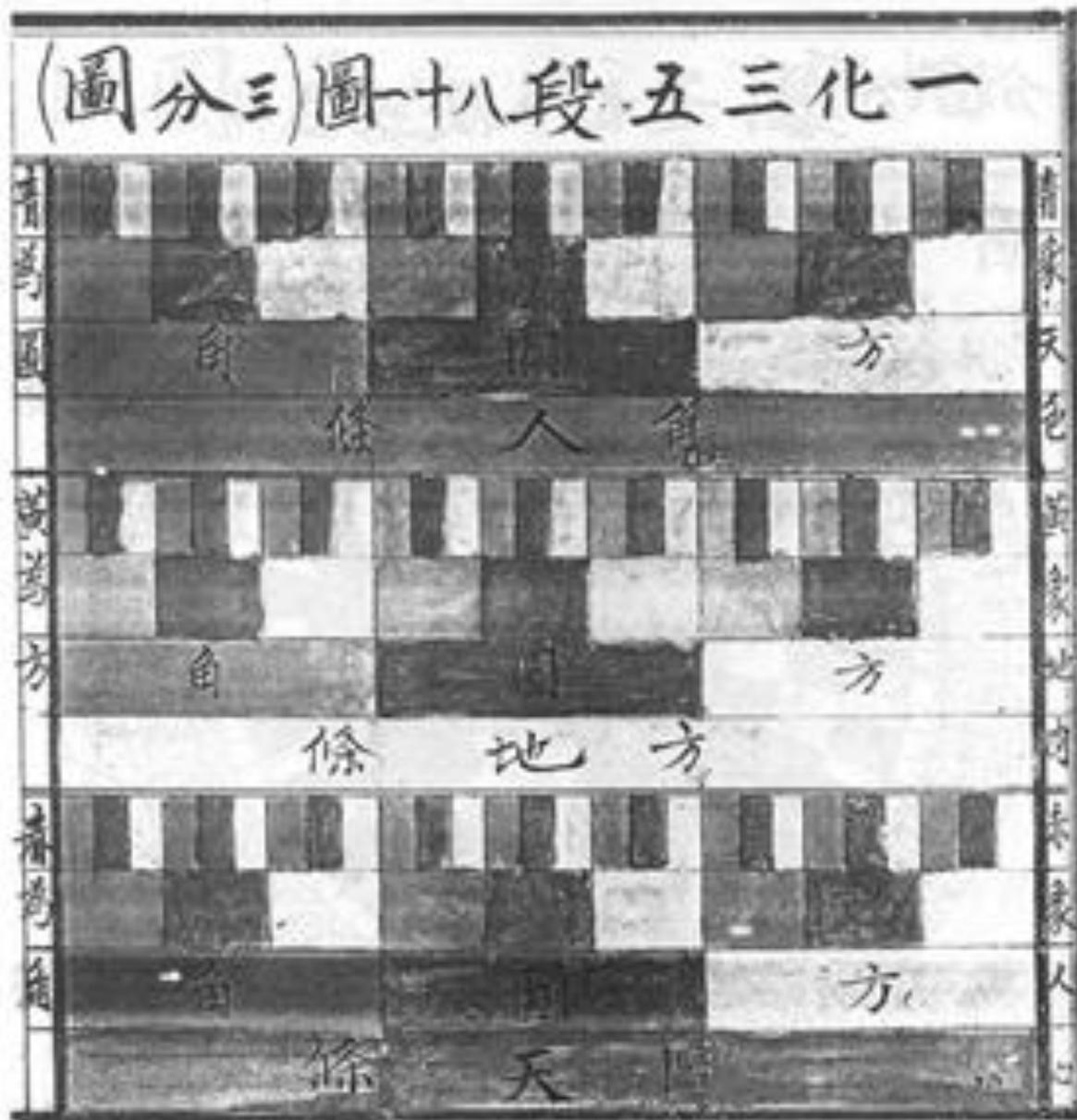
<성세영의 「일화삼오단팔십일도(一化三五段八十一圖)」①방도(方圖)>



<성세영의 「일화삼오단팔십일도(一化三五段八十一圖)」②원도(圓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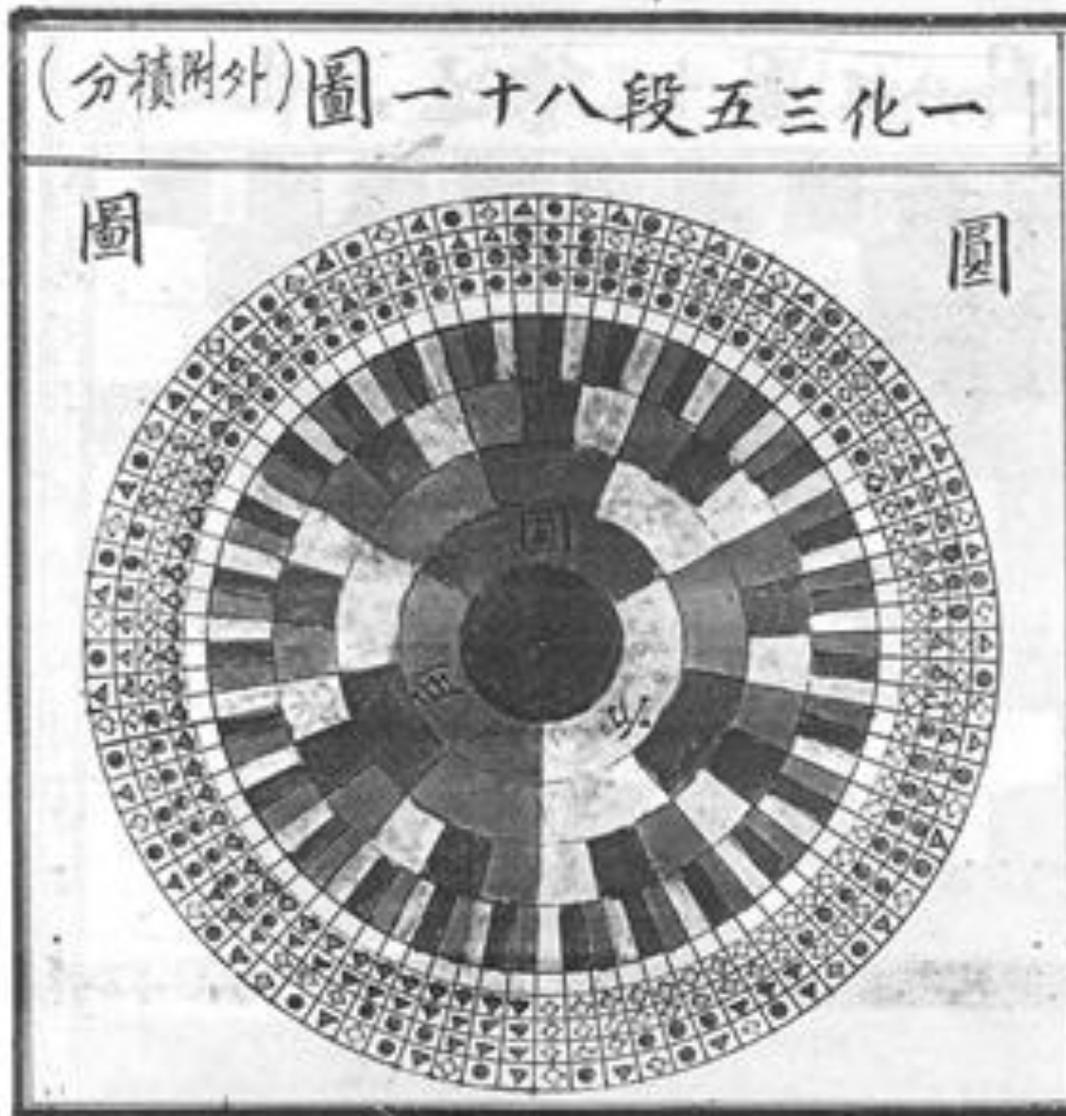
<성세영의 「일화삼오단팔십일도(一化三五段八十一圖)」 ③삼분도(三分圖)>



<성세영의 「일화삼오단팔십일도(一化三五段八十一圖)」

④외부적분(外附積分)>

* 바깥쪽 4겹의 ○·◇·△을 — -- ... 으로 바꾸면 『태현경』 81수(首)와 같다



5. '3수 분화의 세계관'과 聖數의 의미

(1) 3 = 변화의 계기수 (Number of Chance for Change)

- . 화투놀이에서 고돌이와 숫자 3
 - 1번 싸면(?) 재수 없지만, 3번 싸면 난다. 왜?
 - 3번 고를 하면 두배로 준다.
- . 우리 속담과 숫자 3
 - 똥차, 영구차, 장님을 보면 재수가 없다.
 - 똥차, 영구차, 장님을 하루에 3번 보면 재수가 좋다.
 - 좋은 말도 3번 하면 듣기 싫다.
 - 3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 . 우리의 전설이나 민담에는 꼭 셋째가 부모님의 병을 고치는 약을 구해온다.
- . 몽골에서는 오보를 3바퀴 돌면서 기원을 하고, 고시래도 3번 한다.

(2) $9(3 \times 3) =$ 변화의 완성수 (Number of Completing Change)

- . '시집살이는 **병어리 3년,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이다'는 속담의 뜻은?
- .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九尾狐)
- . 구미호도 재주를 3번 넘어야 변화가 시작되고 완성된다.
- . 몽골족, 만주족 등 북방민족은 최고의 예를 표할 때 '**삼궤구고지례(三跪九叩之禮)**'를 행했다. 이것은 3번 무릎을 꿇고, 각각 3번씩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다.
- . 징기스칸이 특등공신 6명에게 "**9번까지 과실을 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상을 내린다.
- . 북방 유목민족들은 9마리 가축을 단위로 그 몇 배의 벌을 받는다. **9.9벌(=9벌9)**이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
- . 선물도 9개를 단위로 했고, 최고는 81종을 바치는 '**구구예법(九九禮法)**'이다.

(3) $81(9 \times 9) =$ 우주적 완성수 (Number of Universal Completeness)

- . 몽골 **나담축제**에서 씨름, 활쏘기, 말달리기 3종의 경기가 열리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81종의 선물**을 주었다.
- . 『몽골비사』에는 칭기스칸을 알현했던 부르칸이 **‘모든 것을 9가지씩 9벌’** 즉 81종의 선물을 갖추어서 알현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 . 몽골에서 최고의 미인 표현 : **“여든 한 가지 특징을 갖춘 매우 아름다운 여인”**
- . 몽골 지배 당시 고려의 충선왕(忠宣王)은 몽골 진왕(晉王)의 딸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몽골의 황제, 태후, 그리고 장인인 진왕에게 각각 **81마리의 백마(白馬)**를 헌상했다.
- . 몽골의 천막집인 ‘겔’에는 우리나라의 서까래에 해당하는 **우니(Uni)**가 대부분 81개





6. '3수 분화의 세계관'의 논리화, 철학화

'3수 분화의 세계관'이 후대에 논리화, 철학화된 것이 **도가(都家)**나 **신선사상, 선도(仙道) 계통**에 잘 정리된 소위 '3.1 철학'이다.

'3.1 철학'에서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임을 강조하고 논리전개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것은 도교, 신선사상 계통의 저서들에 잘 남아 있는데,

- (1) 11세기 송(宋)대 장군방(張君房)이 편찬한 도교(道敎) 교리의 개설서(概說書)인 『**운급칠침(雲級七籤)**』,
- (2)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 (3) 한(漢)대의 도교 경전인 『**태평경(太平經)**』,
- (4) 전한(前漢)대 양웅(揚雄)의 『**태현경(太玄經)**』,
- (5) 한국의 대종교(大倂敎) 교인 성세영(成世永: 1885~1955)의 『**일청사고(一晴私稿)**』와 『**부인경(符印經)**』
- (6) 민족종교에서 경전으로 사용되는 환단고기의 『**천부경**』 『**삼일신고**』 등에 잘 남아 있다.

7. 몽골 브리야트족의 입무의식인 차나르 (Chanar)를 통해서 본 聖數 사용의 사례

(1) 차나르 의식은 **3일 동안** 굿을 한다. 인간에서 샤먼으로 변하는 '변화의 계기수' 3을 거치는 것이다. 이런 차나르 의식을 13번 거치면 '자이랑'이라는 박수 등급에 오른다.

* 몽골에서 7과 13은 '3수분화의 세계관'과는 다른 계통의 성수임

(2) 호리(Holi) 브리야트족의 무당들은 차나르 의식을 할때 상징나무에 제를 올린다. 자작나무를 **구구 팔십일($9 \times 9 = 81$)** 또는 **삼구 이십칠($3 \times 9 = 27$)** 그루를 심는데, 이를 데르벨게(Derbelge)라고 한다.

이 81그루 혹은 27그루의 자작나무로 구성된 데르벨게의 가장 윗 부분에 **부친목(父親木)**, **모친목(母親木)**이라는 두 그루의 나무를 심고, 오색의 비단과 천으로 나뭇가지를 장식한다.

부친목의 끝에는 붉은 비단으로 **태양 형상**을 오려서 자작나무에 붙이고 부친목의 끝에 매단다.

모친목 끝에는 하얀 비단으로 **달 형상**을 오려서 둥근 펠트 위에 붙여서 매단다.

- (3) 모친목에 비단과 천조각으로 **새집을 3개** 짓고 **양털로 9개의 알**을 만들어 **3개의 새집에 각각 3개씩** 넣는다.
- (4) 넷째, 모친목 옆에는 **9개의 문이 있는 후르지(Hurji)**라는 **오두막**을 짓고 제사상을 차린다.
- (5) **81개의 작은 쇠스랑 모양의 바르닥(Bardaag)**도 상징물로 사용된다.
- (6) 무당의 의식을 돕는 조무(助巫)를 예슨친(Iyesunchin)이라고 부르는데 **'9명(=예슨)의 사람(=친)'**이라는 뜻으로 **남자아이 6명과 여자아이 3명**으로 구성된다. 예슨친은 정화를 위해서 불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3바퀴** 돌고 자리에 앉는다.
- (7) 차나르 의식이 시작되면 의식을 주관하는 무당은 예슨친을 데리고 **화덕 주위를 9번** 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면 밖에 나가서 굿을 시작한다.
- (8) 제물로는 **3년** 동안 잘 보살펴온 **3살박이 숫양**을 사용한다. 이 숫양에게는 **9명의 사람 형상을 그린 흰색 천**을 이마에 둘러주고, 하닥도 달고, 숫양의 네 발굽에는 기름을 칠해 준다.

(9) 집의 서남쪽 문짝 위의 **서까래(Uni) 3개**를 빼내고 그 사이로 **남자 3명**이 밖으로 나가서 지붕을 걷어내면 이 구멍으로 집안에서 **3 사람이 3살박이 솟양**을 들어 밖으로 옮긴다.

그러면 **밖에 서 있던 3명**이 양을 받아서 빨간색 나무틀 사이로 양을 다시 통과하게 한 후 **3명이 집 둘레를 3바퀴** 돈다. 이 때 양을 데리고 몽골의 천막 집인 게르(Ger) 둘레를 도는 3명은 소리도 내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진노한다고 여긴다.

(10) 게르 둘레를 **세 바퀴** 돌 때에는 반드시 **구구 81걸음**으로 돌아야한다. 도는 동안 무당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다. **1바퀴에 27보(9×3)씩 3바퀴면 81(9×9)보**가 된다. 1바퀴 돌때마다 완성수 9를 '변화의 계기수'인 3번 반복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마지막 3바퀴에서는 완성수 9를 9번 반복한 '우주적 완성수'를 이루는 것이다.

(11) **3살박이 솟양**을 데리고 게르를 돌았던 **3명**은 게르 안으로 들어오면 굶을 하고 있는 **무당 둘레를 3번** 돌고, 무당이 사용하는 바르닥이라는 채찍으로 **등을 3번 스치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한 후에 서쪽으로 가서 앉는다.

몽골 브리야트 샤먼의 입무의식인 차나르 의식의 절차를 보면 대부분의 의례에 사용되는 **상징수들은 3, 9, 81 등 '3수 분화의 세계관'의 성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 '3수 분화의 세계관'의 기원과 환일

- . '왜'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일까 ?
- . 이 세상에 '하나이면 동시에 셋'인 그 무엇인가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가 ?
- . 북방 샤머니즘에서도 3.1신 관념이 있었다면, 고대인들이 실제로 관찰가능했던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그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았을까 ?
- . 고대인들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관념을 하나의 사유체계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실제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이 무엇이였을까 ?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3.1 관념은 환일현상(幻日現象)에게 기원하며, 3.1신, 3.1철학, 삼신사상 등으로 종교화, 철학화 된다.

< '환일(幻日: Sundog, Mock sun, Parhelion)>

태양빛이 공기중의 얼음 입자에 굴절되어, 태양의 좌우에 2개의 가짜 태양이 나타나는 특이한 기상현상은,

- (1) 우리말로로는 '여러 개의 해'를 의미하는 '무리해',
- (2) 한자로는 '가짜 태양'이라는 의미의 환일(幻日),
- (3) 영어권에서는 썬독(Sundog, Sun dog) 혹은 모크 썬(Mock Sun: 가짜 태양),
- (4) 과학적 용어로는 파히리온(Parhelion)이라고 불린다

2009.2.18일 미국 노스-다코다주(North Dakota) 파고(Fargo)

* 고대인들에게 태양은 신=태양신이였다.



2005.1.22일 미국 미네소타주 뉴-우름(New Ulm)



2011.4.21일 한국 강원도 대관령



9. 幻日과 3.1신, 3.1관념의 탄생과 체계화

- 고대인들에게 태양은 신=태양신이였다.



- 몇 년만에 한번씩 환일 현상이 일어난다면, 고대인들에게는 형용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이다.



- 환일이 일어난 다음날 다시 1개의 태양이 뜨면, 고대인들은 “저 1개의 태양 안에는 3개의 태양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 “1개의 태양 안에 3개의 태양이 내재되어 있다”는 고대인들의 믿음은 몇 년을 단위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환일현상을 통해 확신되었다.



- 이러한 1=3이라는 삼일관념, 삼일신 관념은 후대에 체계화 논리화된다.
- 1이 지속적으로 3으로 분화되는 사유체계는 북방샤머니즘의 고유한 사유체계인 ‘3수 분화의 세계관(1-3-9-81)’으로 정착되게 된다.

10. 우리나라의 환일 관련 기록들

(1) 『삼국사기』에는 **두 번**의 환일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1) 신라 혜공왕(惠恭王) 2년(766) 1월에 “2개의 해가 동시에 떠서 대사면을 행하였다”는 기록과, (2) 신라 문성왕(文聖王) 7년(845) 12월 1일에 “3개의 태양이 동시에 떴다”는 기록이 있다

(2) 『삼국유사』에는 **한 번**의 환일 기록이 있다. 곧, 신라 경덕왕 19년(760) 4월 1일 “두 개의 해가 나타나(二日並現)” 없어지지 않자 월명사로 하여금 도솔가(兜率歌)를 짓게 하였다는 기록이다. 이것은 신화적 표현이 아니다.

(3) 『고려사』 전체를 살펴본 결과 환일현상과 관련한 기록이 총 114건이다. 이 가운데, (1) 의종(毅宗) 13년(1159)과, (2)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보이는 ‘3개의 태양이 동시에 떴다(三日並出)’는 기록은 천문(天文)과 세가(世家)에 중복 기록되어 있어 하나씩 제외하면 환일현상과 관련된 기록은 **총 112건**인 셈이다.

환일현상과 관련된 총 112건의 기록은 34대 475년(918~1392) 동안 지속된 고려 시대에 평균적으로 **약 4.24년에 한 번씩 환일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조선왕조실록』에서 환일 관련 기록은 **총 91건**으로, (1) ‘3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올랐다(三日並出)’와 관련된 기록이 5건이고, (2) 태양의 좌우에 1-2개의 햇귀(日珥), 아주 가끔은 일관(日冠)이나 일포(日抱)가 있었다는 기록이 86건이다. 27대 519년(1392-1910) 동안 지속된 조선 시대에 **약 6.03년에 한 번씩 환일 관련 현상**이 일어난 셈이다.

11. 북방 신화/설화와 환일현상

(1) **동이족 계열의 신화인 예(羿)와 관련한 10개의 태양 신화**는 환일현상에 대한 기억이 신화적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내훈과 외훈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 10개의 태양이 뜰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방 소수민족들 사이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여러 개의 태양과 관련된 관념이 있었다. 러시아 극동대학교의 고고학자 데. 엘. 브로단스키는 동북방 아무르 강 유역에 사는 여러 소수민족들에게서 보이는 궁수(弓手)와 여러 개의 태양 신화들을 소개하면서 **“궁수와 다수의 태양에 대한 신화는 아무르에서 가장 이른 시기 - 기원전 5천년기 - 로 편년 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로단스키는 여러 개의 태양 신화를 직접적으로 환일현상과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필자는 여러 개의 태양 신화의 기원은 환일현상과 관련된다고 본다.

(3) 필자는 여러 개의 해와 달 가운데 **여분(餘分)의 해와 달을 늑대가 먹는다**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신화**도 '환일현상' 혹은 '환월현상'과 관련된 이야기의 변형이라고 본다. 브로단스키는 이러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신화가 구석기 시대에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환일현상을 좀 더 자주 관찰할 수 있었던, **(1) 위도가 높고, (2) 평원에 가까운 지역에** 살던 북방민족들에게는 환일현상으로 인한 여러 개의 태양이라는 관념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12. '3수 분화의 세계관'의 확산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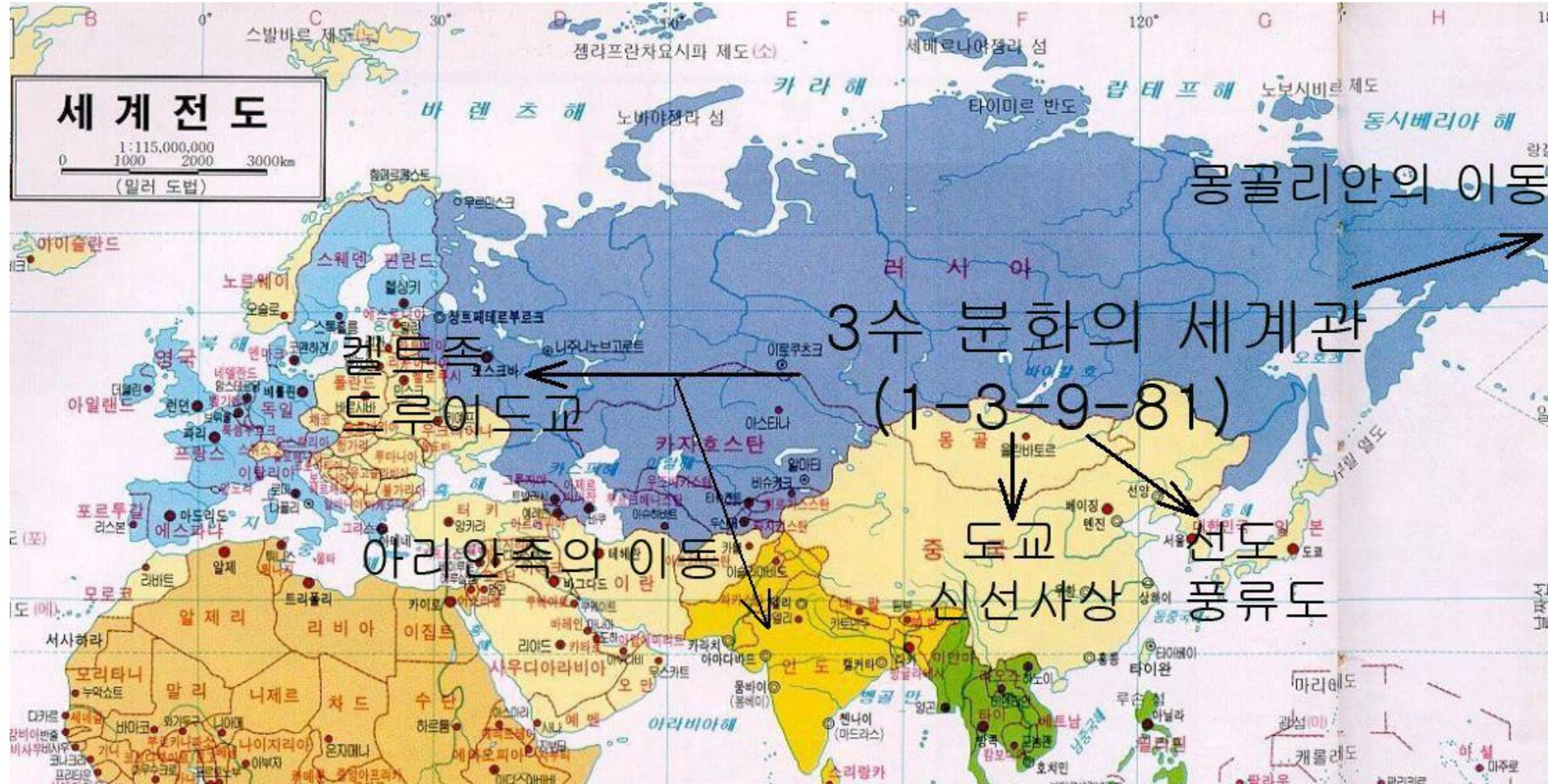
필자는 '3수 분화의 세계관'에 대해서 연구해 오면서, (1) 북방 샤머니즘을 공유한 지역에서 발원하여, (2) 요서 지방 일대 **요하문명의 홍산문화 (紅山文化: B.C. 4500 - B.C. 3000) 특히 후기(B.C. 3500 - B.C. 3000)**에 체계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신석기시대 이래로 중앙아시아, 알타이산맥, 몽골초원, 시베리아 남단, 만주일대에 이르는 초원의 길은 수많은 유목민족들이 왕래하던 공간이었다.

이 고대의 초원길을 통해서 북방 샤머니즘의 '3수 분화의 세계관'은 **(1) 민족 이동, (2) 문화 전파, (3) 물적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승되었다. 이들이 수없이 교류, 접촉, 왕래하면서 '3수 분화의 세계관'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다.

<'3수 분화의 세계관'의 확산 가설(우실하)>

*현재 각 지역에 대한 세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1) 북방 샤머니즘 지역에서 기원하여 **홍산문화 지역에서 최초로 체계화**되었다.
- (2) 몽골 등 북방 소수민족의 **샤머니즘 안에 잘 보존**되어있다.
- (3) 유목족들의 이동과 교류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에 전승되고 있다.
- (4) 몽골리안 루트를 따라 간헐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도 전승되고 있다.
- (5) 중앙아시아를 넘어 북유럽의 기층문화를 이루는 **북유럽신화나 고대 켈트족의 드루이드교**에 전승되고 있다.
- (6) 기원전 2000-1500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고대 아리안족의 남방 이동으로 이들이 점령한 **인더스 문명 지역**에도 전승되고 있다.
- (7)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선도와 풍류도 그리고 각종 민족종교**에 전승되고 있다.
- (8) 중원 쪽으로 남하하면서 **도가철학, 황노학, 도교, 신선사상** 등에 전승되고 있다.

13. 북유럽 신화와 '3수 분화의 세계관'

서양신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로마신화를 떠올린다. 그러나 서양의 신화는 남쪽의 그리스-로마신화 계통과 북쪽의 북유럽신화 계통 둘이 있고, 이 둘의 신화세계나 사유체계는 전혀 다르다.

북유럽신화는 북방 샤머니즘의 세계관을 기저에 깔고 있다. 예를 들어, 3.1신(神), 9개의 세계, 이그드리실(Yggdrasil)이라는 9세계를 연결하는 우주수, 하늘세계-인간 세계-지하세계의 3계를 연결하는 까마귀와 독수리, 3계를 3개씩 나눈 9개의 세계인 삼계구천설 등 많은 것이 닮아 있다.

아래에서는 북유럽신화나 기층문화에 남겨진 성수 3, 9, 81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첫째, 북유럽 고대 문화에서는 3.1관념이 있었고, 북유럽 신화의 신들도 3.1신이다.

북유럽의 신화에서는 3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물푸레나무인 이그드리실(Yggdrasil)이라는 우주수(宇宙樹) 주변에 살면서 우리의 삼신(三神)/산신(産神) 할머니와 같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는 '운명의 3 여신'이 있다.

'운명의 여신'은 3자매로 표현되며 하나이자 셋인 삼위일체의 3.1신이기도 하다. 곧, '운명의 여신'으로 총칭할 때는 노르느스(Norns)라고 불리고, 기능에 따라서 분화될 때에는

- 생명의 실을 짓는 여신은 우르드(Urd),
- 생명의 실의 길이를 재는 여신은 베르단데(Verdande),
- 생명의 실을 잘라서 인간의 수명을 확정해주는 여신은 스클트(Skuld)라고 각각 별칭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삼신할머니를 삼신(三神)할머니 혹은 산신(産神)할머니라고 혼용하는 것은 이런 3.1신의 관념이라고 본다. 삼위일체의 3.1신 형상은 홍산문화 시기에 처음 보인다.

(2) 둘째, 북유럽신화도 삼계구층설을 공유하고 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런 삼계가 각각 3층으로 분화되어 9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아주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북유럽신화에 삼계구층론에 의한 9층의 세계 명칭을 소개해 둔다. 이러한 북유럽신화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다양한 형태의 신과 인간이 섞여 사는 9층 세계를 바탕으로 거대한 현대적 서사시를 써낸 것이 '반지의 제왕'인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중간층의 흑정령국인 스바르탈프하임을 난쟁이들이 사는 동굴 니다벨리르(Nidavellir)와 구별하고 불의 나라인 무스펠하임을 제외하여 9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 상층 :**
- 1. 화염국(火焰國) 무스펠하임(Muspelheim),
 - 2. 신국(神國) 아스가드(Asgard),
 - 3. 정령국(精靈國) 알프하임(Alfheim)

- 중층 :**
- 1. 바나신의 세계인 바나하임(Vanaheim)
 - 2. 인간세계인 중간국 미드가드(Midgard)
 - 3. 거인국인 요툰하임(Jotunheim).

- 하층 :**
- 1. 난쟁이국 혹은 흑정령국(黑精靈國)인 스바르탈프하임(Svartalfheim)
 - 2. 빙설국(冰雪國) 니플하임(Niflheim)
 - 3. 사망의 여신 헬(Hel)이 통치하는 사망국(死亡國) 헬(Hell)

(3) 셋째, 삼계구천의 9층 세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을 연결하는 우주수(宇宙樹)가 바로 북유럽신화에 등장하는 이그드라실(Yggdrasil)이다.

거대한 물푸레나무인 이그드라실은 삼계구천의 우주를 뚫고 솟아있는데, 세계창조 후에 주신(主神)인 오딘이 심었다고 한다.

북유럽신화에서는 3갈래(혹은 9갈래)로 갈라진 뿌리를 지닌 우주수인 이그드리실이 있으며, 북유럽 민간 전설에서는 이 우주수 위에 3계 9층 세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그드라실은 세 줄기의 거대한 뿌리가 있어, 그 중 하나는 지하(地下) 세계 또는 안개의 나라 니플헤임으로, 또 하나는 인간세계인 미드가르드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신의세계인 아스가드로 뻗어 있다고 한다.

삼계구천 세계를 이어주는 이그드라실은 북방 샤머니즘의 우주수 = 생명수 = 사면수와 같이 각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4) 넷째, 북유럽신화에서도 숫자 9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성수다. 특히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9라는 숫자에 주목을 한다. 고대 스웨덴의 **우프살라 신전은 최고신 오딘(Odin)의 신전이 있었다.** 여기에서 거행된 종교의식은, **매 9년마다, 9일 동안 거행되었고, 9명의 사람과 모든 종류의 짐승을 9마리씩 제물로 바쳤다.**

<케빈 크로스리-홀랜드(Kevin Crossley-Holland)의 책에서 인용>

“**아홉** 세상은 이그드리실이라는 나무에 의해서 전부 둘러싸여 있다. 오딘은 **아홉** 개의 **마법의 노래**를 거인으로 부터 배웠다. **헤임달은 어머니가 아홉** 명이였다. 오딘의 아들인 **헤르모드(Hermod)**는 발데르를 저승에서 데려오기 위하여 **아흐레 동안** 여행했다. 우프살라(Uppsala) 신전에서 거행되던 성대한 종교의식은 **매 9년마다 9일 동안** 계속되며 **아홉** 명의 사람과 모든 종류의 짐승을 **아홉** 마리씩 제물로 바쳐야 했다.

9라는 숫자가 북유럽신화에서 왜 가장 중요한 숫자인지는 아직 만족할 만하게 해명되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 숫자가 주술적인 특질이 있다고 믿는 것은 비단 스칸디나비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다.

프레이저(J.G. Frazer)는 [황금가지(The Golden Bough)]에서 웨일스(Wales), 리투아니아(Lithuania), 시암(Siam), 멘타와이 제도(Mentawai chain)에 있는 니아스(Nias) 섬 등과 같이 멀리 떨어져있는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는 **아홉**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의식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물론 9는 한 자리 수의 끝이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신화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9는 또한 전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5) 다섯째, 고대 스웨덴의 왕들은 9년 동안만 통치를 하고 살해되거나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대리자를 찾아야 했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는 『황금가지』에서 스웨덴의 왕 아운(Aun) 혹은 온(On)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을 채록해 놓았다.

- 아들 1명을 제물로 바칠 때마다 9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 9번째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81(9×9)년까지 수명을 연장하지만,
- 10번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자 스웨덴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왕을 살해하고 만다.

이것은 '3수 분화의 세계관'의 '완성수 9(3×3)'와 '우주적 완성수 81(9×9)'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면 쉽게 해독할 수 있다.

(6) 여섯째, 동북아시아에서 북방 샤머니즘이 도가나 선도계통에 체계화되듯이, 북유럽 지역에서 북방 샤머니즘이 나름대로 체계화되고 종교화된 것이 **켈트족이 중심이 된 드루이드교**이다.

따라서 켈트족이나 드루이드교의 문화에는 기능적 3.1신 관념, 3.1관념에 입각한 도상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켈트족의 신화와 민속에서는 '**셋이 하나가 된(Three in one) 트리프리티(Triplicity)**' 형태의 도형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Trinitarianism)**은 초기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관념으로 북유럽의 기층문화에 깔려있던 3.1관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셀틱 스피랄(Celtic Spiral)**'로 통칭되는 문양 가운데, (1) 하나의 동심원이 2줄로 회전하는 형태는 동양의 **음양태극**과 똑같은 모습으로 도상화되고, (2) 동심원이 3줄로 회전하는 형태는 동양의 **삼일태극**과 똑같은 모습으로 도상화된다.

14. 켈트족의 3.1(Three in one)관념의 상징 도상

(1) 트라이퀴트라 (Triquetra, Triqueta)



- . 세 마리의 물고기가 얽혀 있는 도상
- . 켈트족의 3.1신을 상징하던 것이 기독교 유입이후 켈트족 교회에서도 삼위일체의 상징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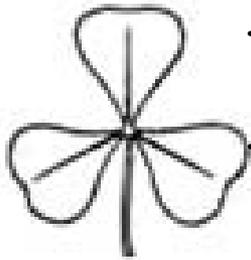
(2) 오원 (Awen)



- . 3줄기의 빛을 상징하는 3 기둥과 그 위의 3 점으로 구성
- . 고대 켈트족 언어에서 영감(inspiration), 본질(essence)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1) 좌측 기둥과 점은 여성 에너지, (2) 우측 기둥과 점은 남성 에너지, (3) 가운데 기둥과 점은 둘의 조화를 의미한다.

. 또한 (1) 드루이드의 3가지 미덕인 용기(Courage), 형제애(Brotherhood), 헌신적 봉사(Selfless service), (2) 하늘, 땅, 바다, (3) 몸, 마음, 영혼, (4) 사랑, 지혜, 진리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삼록 (Shamrock)



. 3잎 크로버로 현재 아일랜드의 국장(國章)이기도 하다.

. 가장 오래된 켈트족의 도상 가운데 하나로 3.1(Three in one) 관념을 상징하며 악을 물리치는 마력을 지닌 것으로 본다.

. 이 도상은, (1) 켈트족의 삼계관인 **하늘, 땅, 바다**, (2) 삶의 3과정, (3) 드루이드의 3가지 미덕 등을 상징한다.

(4) 트라이스켈(Triskel) = 트리플 스피랄(Triple spiral) = 켈틱 스피랄(Celtic Spiral)



. 동심원 3개가 3가지로 뻗은 도상으로 다양한 모양의 변형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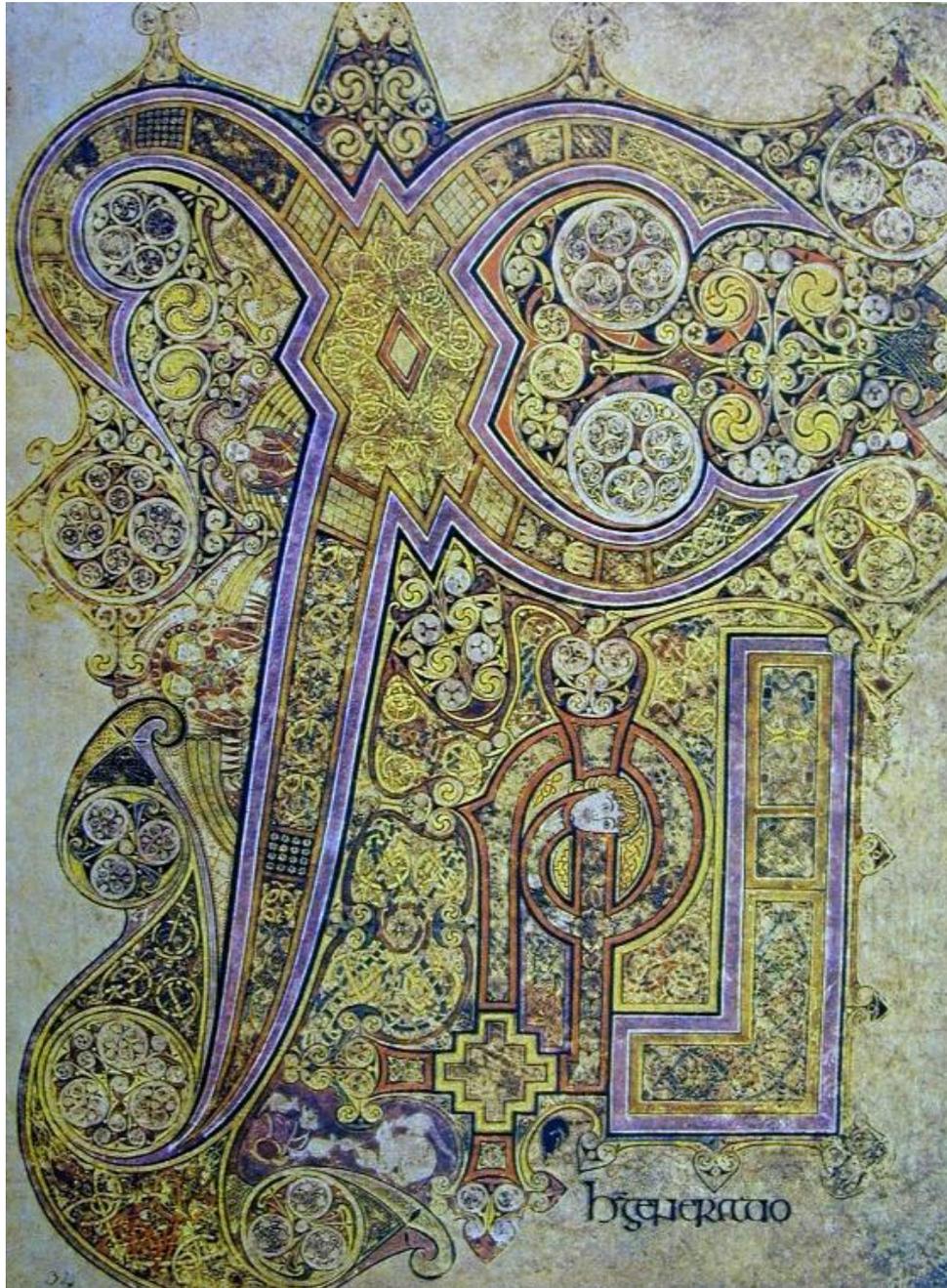
. 켈트족의 드루이드교에서, (1) 땅, 바람, 불, (2) 드루이드의 3가지 미덕인 용기, 형제애, 헌신적 봉사, (3) 삶의 3단계인 시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5) 트리플-트리플 스피랄(Triple Triple Spiral)

- . 3가닥으로 회전하는 트리플 스피랄(Triple spiral) 3개가 원 안에 모여 있는 도상
- . 트리플 스피랄의 모든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의미를 증폭시킨다.



*『켈즈의 서(Book of Kells)』에 보이는 '셀틱 스피랄(Celtic Spiral)'



< '셀틱 스피랄(Celtic Spiral)'과 음양태극, 삼일태극의 비교 >

<p>고대 켈트족의 암각화에 보이는 셀틱 스피랄</p>	<p>『켈츠의 서』에 보이는 셀틱 스피랄</p>	<p>동양에서 보이는 음양태극, 삼일태극 문양</p>
		
		

3.1관념의 기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일(幻日: Sundog, Mock sun, Parhelion)현상’ 2. ‘세 가닥으로 꼬인 텃줄’은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3.1관념을 지속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 (텃줄-새끼줄-뱀)
최초의 체계화	. 홍산문화(紅山文化: B.C. 4500-B.C. 3000) 특히 후기(B.C. 3500-B.C. 3000) 시기
우주관	. 삼계구천설(三界九天說), 우주수(宇宙樹)
본체론	.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3.1철학
우주론	. ‘3수 분화의 프랙탈(fractal) 구조’
성수(聖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화의 계기수(Number of Chance for Change)’ 3 2. ‘변화의 완성수(Number of Completing Change)’ 9(3×3) 3. ‘우주적 완성수(Number of Universal Completeness)’ 81(9×9)
철학화, 종교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양 : 선도, 신선사상, 도가, 도교, 풍류도, 대종교 2. 서양 : 켈트족의 드루이드교(Druidism)
상징 도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양에서 3.1관념을 도상화한 것이 삼일태극(三一太極圖) 2. 북유럽의 켈트족과 드루이드교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트라이스켈(Triskel), 트리플 스피랄(Triple spiral), 트라이퀴트라(Triquetra, Triqueta), 오웬(Awen), 3잎 크로버인 삼록(Shamrock), 트리플-트리플 스피랄 (Triple Triple Spiral) 등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산문화 시기에 최초로 체계화된다. 2. 북방 샤머니즘 안에 잘 보존되어있다. 3. 북방 초원 루트를 통한 민족과 문화의 이동, 교류, 전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샤머니즘과, 북유럽 신화, 고대 켈트족의 드루이드교 등을 통해 기층문화에 전승되고 있다. 4. 몽골리안 루트를 따라 간헐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남-북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전승되고 있다. 5. 기원전 2000-1500년 대대적인 고대 아리안족의 남방 이동으로 이들이 점령한 인더스 문명 지역 에도 일부 전승되고 있다. 6. 한반도 쪽으로는 내려오면서 선도와 풍류도 그리고 각종 민족종교에 전승 되고 있다. 7. 중의 쪽으로 내려오면서 선도와 풍류도 그리고 각종 민족종교에 전승 되고 있다.

15. '우실하 바이러스(?)'

필자는 20년을 넘게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을 돌아다니며 '3수 분화의 세계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무엇을 보든 숫자를 세는 버릇**이 생겼다.

'3수 분화의 세계관'과 관련한 강좌에서 한 학기 강의를 듣고 답사까지 마친 학생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보든 숫자를 세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은 당시 유행하던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에 빗대어, '**우실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새롭다. 필자의 숫자 세는 버릇이 자신들에게 전염(?)되었다는 것이다.

필자의 『3수 분화의 세계관』(서울: 소나무, 2012)을 꼼꼼하게 읽은 독자들도 '우실하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른다. 아니 걸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실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아니 유라시아의 기층문화를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는 **유쾌한 바이러스, 건강한 바이러스**다.

한국, 동북아시아, 북유럽 기층문화의 심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숫자 3**을 비롯한 **9(3×3), 81(9×9)** 등의 상징성은 **북방 샤머니즘의 사유체계인 '3수 분화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실하 바이러스'에 감염된 많은 독자들이 생겨나서 '3수 분화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유라시아의 문화적 산물들을 새롭게 살펴본다면 필자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흔적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실하 바이러스'에 걸린 많은 분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은 **필자 홈페이지(www.gaonnuri.co.kr)** '**가온누리 사랑방**'에 올려서 공유하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이 책을 계기로 문화사, 사상사, 종교사, 민속학, 문화인류학 등 각 관련 학문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끝) -----감사합니다-----

우실하(禹實夏)



- . 연세대 사회학과 학사, 석사, 박사
- . 동양사회사상,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상사.
- . 중국 요녕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역임
- .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 . 홈페이지 www.gaonnuri.co.kr
- . 이메일: woosilha@kau.ac.kr

<단독 저서>

1. 우실하, 『3수 분화의 세계관』 (서울: 소나무, 2012).
2. 우실하, 『고조선의 강역과 요하문명』 (서울: 동아지도, 2007).
3. 우실하, 『통문화는 항상 그대로 일까?』 (서울: 웅진씽크빅, 2007).
4. 우실하,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서울: 소나무, 2007).
5. 우실하, 『동북공정의 선행 작업과 중국의 국가 전략』 (서울: 시민의신문, 울력, 2004).
6. 우실하, 『전통 음악의 구조와 원리: 삼태극의 춤, 동양 음악』 (서울: 소나무, 2004).
7. 우실하, 『한국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서울: 소나무, 1998).
8. 우실하,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 문화 바로 읽기』 (서울: 소나무, 1997).

<공저>

1. 공저, 『한국문화와 오리엔탈리즘』 (서울: 보고사, 2012)
2. 공저, 『고대 동북아 연구: 어제와 오늘』 (서울: 백산자료원, 2008).
3. 공저,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서울: 여유당, 2008)
4. 공저,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강역』 (서울: 동아지도, 2007).
5. 공저,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서울: 지식산업사, 2007).
6. 공저,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 (광주: 전남대출판부, 2006).
7. 공저, 『21세기 동북아 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국제평화지도자연합, 2005).
8. 공저, 『동양을 위하여 동양을 넘어서』 (서울: 예문서원, 2000).
9. 공저, 『21세기를 위한 한국 환경보고서』 (서울: 신광문화사, 1995).